

전주시, 시내버스 통합노선도 구축

내달 20일 예정된 전주·완주 노선개편 맞춰 운영

전주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원하는 목적 노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노선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 운영하는 통합노선도는 시내버스 스마트폰 어플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보다 쉽게 버스승강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노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존의 혼잡했던 개별 노선도를 부분 통합해 공통구간을 운영하는 노선정보를 한 장의 노선도에 표기한 통합노선도를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시내버스 승강장에 부착됐던 시내버스 노선도의 경우, 각 개별 노선별 정보만 소개돼 정보전달력이 미

비했다. 또, 목적지에 가는 다른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타던 노선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평화동·구이방면에서 송천동·농수산시장을 오가는 944번과 946번, 947번, 970번, 973번, 974번, 976번, 977번, 978번 버스 등 9개 노선의 경우 모두 완주군 구이방면 동적골-전주시 석구동 원석구마을에서 도립국악원-송천삼거리까지 공통구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기점과 종점에 따라 각각 다른 노선번호가 부여되고 개별 노선도로 소개돼 이용객들이 모든 노선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00번대 노선이 하나의 통합노선도에 표기됨에 따라 평화동 구이방면에서 송천동 농수산시장 방향을 오가는 승객들은 통합노선도만 확인하면 자신이 탈 수 있는 9가지 버스노선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노선개편에 맞춰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각 노선별 주요 환승지점 등을 표시한 시내버스 노선도 표준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달린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상세한 노선도가 실린 40여 페이지 분량의 노선안내도 소책자 15만부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그간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노선개편 시행 열흘 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 승강장에 노선안내도를 부착하는 등 앞으로도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달린 노선에 대한 집중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에서도 기간제 우천시행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 지역의 병원과

상가 등 다중집합시설들을 중심으로 마을별 노선도, 환승체계 등 이용방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통합노선도 구축과 주요 환승지점을 표기한 시내버스 노선도 개선으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그간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노선개편을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4.6분 감소하고 평균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km 줄어, 시내버스 가 더 빨리 더 자주 다니고, 시민들의 버스 탑승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봄철 산불예방 체계 조기 가동

25일 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으로 정해

전주시가 봄철 산불예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편성보다 한 주일 앞당겨 가동키로 했다.

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봄철 연휴기간 장기화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비상 체계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봄철 산불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관망이 잘되는 산 정상에 감시원 25명을 배치하고, 산불 취약지에 이동감시원 17명과 진화대원 90명 등 총 132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시 즉시 출동해 진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인접 시·군과 소방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임차헬기(3대)와 산림청헬기(4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신속한 진화활동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이다. 특히 봄철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설 연휴(1.27~30)와 어린이날·석가탄신일(5.3~7) 등 봄철 휴일 장기화로 인한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봄철에 발생했으며, 이중 입산자 실화가 75%, 소각산불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청 산림부서(시청=063-281-2511, 완산구=220-5421, 덕진구=270-6521)와 소방서(119) 또는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전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및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

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차종에 상관없이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올해 선착순 30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8종(승용7, 화물1)으로 한정된다.

이를 위해 시는 24일 전주시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오는 25일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보석상 여종업원 둔기로 폭행 금품 훔치려한 20대 검거

보석상에 들어가 둔기로 여종업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씨(2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경 익산시내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돈을 내놓으라며 종업원 설모씨(45,여)를 쇠팡치로 50회 이상 가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설씨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와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위협했으나 설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다른 보석상 직원이 출근하자 도주하려 하였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설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거액의 카드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근 기자



여성자활센터, 설 맞아 알뜰장 열어

전주시여성자활센터(회장 김영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전주 시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개최한다.

이번 알뜰장에는 설음식 준비에 필요한 계수용품과 과일, 건어물, 한과 및 선물용 설 상품 등 20여 가지의 우리 농수산물 판매된다.

여성자활센터 알뜰장은 올해로 20여년째 해마다 명절을 맞아 열리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시민에게는 설맞이 특별전통시장으로 각인되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 직송되는 맛있는 굴비는 가장 인기 있는 단골제품으로 찾는 고객이 많아 항상 준비한 물량이 부족하다. 또, 생산 농가 직송 과일은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해 명절 선물로 많은 시민들의 찾고 있다.

여성자활센터는 알뜰장 판매

수익금을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로 5년째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는 “생산 농가를 직접 찾아가 과일을 구입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기쁨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알뜰장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순 전주여성자활센터 알뜰장 회장은 “여성자활센터가 알뜰장을 20여년간 이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산자를 직접 방문해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전주 시민이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춥고 힘든 시기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명절 선물로 많은 시민들의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컬러복사기 이용해 자기앞수표 위조한 40대 검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억 5,2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유모씨(41,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3일 군산시내 소재의 한 우체국에서 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발급받은 후 인근 여관으로 이동해 컬러복사기로 수표 76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유씨는 위조수표를 사용해 16일부터 군산, 충남 서천등의 유흥업소에 들어가 위조수표를 6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수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이 육안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위조한 수표를 들이지 않기 위해 실내가 어두운 유흥주점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며 뒷면의 이서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을 위해 수표를 복사했다”고 범행동기를 전했다.

경찰은 위조 수표의 추가 유통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